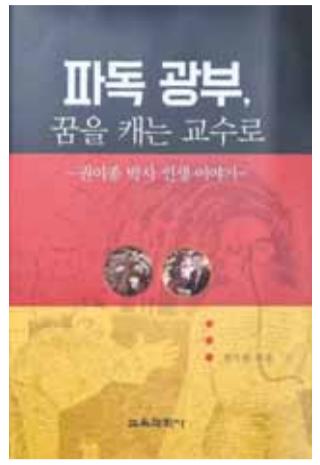


파독 광부, 꿈을 캐는 교수로

권이종 박사 인생이야기



기쁘게 달려온 격동의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권이종 회장을 분당의 한 식당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권행완 편집국장 :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독 광부, 꿈을 캐는 교수로”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출판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권이종 회장 : 1964년에 독일에 광부로 갔는데 후세들에게 왜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가야만 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서전이자 애세이이기도 하고 내 삶을 종체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경제사정으로 명문대를 나와도 스페인이나 아프리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비전도 펼칠 수 없는 막막한 때가 아닌가 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구나, 소개할 걸 해서 꾸밈 없이 순수하게 글로 읽겠습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고향이 전라북도 장수군인데 지금도 시골 이죠. 그런데 독일 광부로 파견되는 것은 어떻게 알고 가게 되었는지요.

권이종 회장 : 형제가 4남매인데 큰형하고 누나 두 분하고 제가 막내인데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근목포로 쌀겨와 섞어서 개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본 기억이 없습니다. 내 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내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 하니까 너도 커서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내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쓰고 다니는 중학교 도자를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 해 부모님 몰래 전주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딜크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합격했다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집안 사정 뻔하니까 그냥 포기하려고 했죠. 내 행동이 이상했는지 어머니께서 무슨 일 있느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결국 중학교에 합격했다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막둥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 멀트 빵을 짜 놓으셨더라고요. 그 베와 장독을 팔았는데 등록금은 턱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집 싸리문 밖에서 쌀 한가마니 좀 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쌀 한가마니 깊을 사정이 안 되니 누가 벌려 주겠습니까. 어머니는 저녁 해가 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시고 애원하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아들을 위해 애걸복걸하셨습니다. 결국 부자집에서 쌀 한가마니를 벌려줘서 그걸 팔아서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196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집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오촌 여조카가 서울 공사관에서는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서울에 올라갈 생각이 없느냐고 문길래 어디를 가든 농사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음식으로 KBS 3층 건물 짓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왕십리에 있는 현책방 흙바탕에서 새우잡을 자는데 빈대가 얼마나 많던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한양대학교 공대생이 파독 광부 모집 기사가 실린 신문 쪽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나쁜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광부 경력이 없어서 당연히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경력을 만들어 주면 갈 수 있다며 함께 독일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상영된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장면처럼 신체검사를 하고 50Kg짜리 모래 가마니를 어깨에 들어 올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갈려면 양복 입고 와야 한다고 해서 형님을 설득해서 소 한마리 팔고 구두는 친구한테 얹어 신고 독일에 갔습니다. 1964년 10월 5일날 출국했습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장에서 광부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공부할 생각을 했는지, 또 그 무엇이



광부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 일기. 양재동 파독근로자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권이종 아프리카아시아남민교육후원회(ADR) 회장

그토록 절박하게 공부에 매달리게 했는지요.

권이종 회장 : 인간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가는 곳이 막장이라고 합니다. 지하 1000m나 되는 땅속에서 기둥을 세우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광산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지하로 내려갈수록 덥습니다. 35°C에서 38°C를 오르내립니다. 또 먼지가 많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폐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천정이 무너져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광부를 마치고도 진폐증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계로 인한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매일, 매초, 매시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살아서 갈지 죽어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원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과 마주하면서 지하 수백 미터 막장에서 독일 문법을 배우고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무국을 끊여주기 위해 무우를 캐다가 무우 구덩이에 있는 대나무에 어머니께서 눈을 찔려서 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동안 한쪽 눈으로만 사셨습니다. 또 막내를 학교에 보내려고 그 추운 겨울날씨에 밖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시고 쌀 한가마니를 벌리기 위해 애쓰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는 향학열의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94세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정리하셨지만 내 박사학위 사진만은 끝까지 곁에 두고 보시다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독일에 어머니가 한 분 더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인연인가요.

권이종 회장 : 우연히 동료를 통해 독일인 가족을 알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중학교 다니는 헬가(Helga)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독일어 공부도 할 겸 전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헬거를 통해 친구 아스트리트(Astrid)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스트리트의 어머니 로즈마리(Rossmari) 부인은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수양어머니입니다. 광부 3년 계약이 끝나서 귀국하려고 한국으로 집을 다 부쳐버렸습니다. 출국 당일 비행기표만 들고 뒤틀도르프 비행장으로 갔는데 수양어머니가 딸 아스트리트와 함께 나를 불잡으려고 공항까지 나왔더라고요. 수양어머니는 저에게 니 꿈이 선생인데 그냥 귀국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내가 다 돌봐줄 테니 자신을 믿고 독일에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더라구요. 나한테는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수양어머니의 끈질긴 설득 끝에 머리로는 귀국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독일에 남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비행기에 타지 않고 결국 울며불며 로즈마리 수양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제 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양어머니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대학까지 나온 분이셨고 독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외국인 처지이고 해서 동정심으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공부하기 너무 힘들 때마다 퍼렐러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그 분은 회장님께 어떤 분이었는지요.

권이종 회장 : 타국에서 생과 사의 길을 들락거리며 생활하다보니 항수병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부모형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배개를 불들고 옮기기도 하고 이미자리의 《동백야가씨》를 자주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면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선구자〉를 불렀습니다. 퍼렐러 교수님은 여러분으로 부족한 저에게 외국인 최초로 대학입학을 특별히 허가해 주셨습니다. 못 입고 못 입는 것은 당연했고 학교에서도 점심은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나 쳐지지를 알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외국인 학생은 나밖에 없어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학 수업은 한국하고는 공부하는 방식이 천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하며 수업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들은 생활대화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단어들이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니 과제나 시험은 영망일 수밖에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공부에 자신이 없으니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퍼렐러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

수님은 ‘권 군은 현재 호수 한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빠져 죽을 것인지 살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올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스승,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신 스승, 출세할 수 있게 키워 주신 큰 스승’이시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박사로 만들어주신 분은 퍼렐러 교수님이십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한국 최초로 평생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최초로 한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한국 최초 청소년 연구소 창설 등 청소년과 평생교육 관련 업적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계기로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권이종 회장 : 저는 평생 도전정신을 가지고 개척자, 선구자가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 〈선구자〉는 평생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 준 노래입니다. 독일 국립 아헨(Aachen)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청소년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9년 3월 귀국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국립 평생교육연구소를 전북대학교에 설립했고, 한국청소년연맹과 청소년연구소를 창설했습니다. 나중에 이 연구소가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으로 발전하여 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교복과 두발 자유화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백서와 평생교육 백서도 발간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평생교육 개론서를 출간하는 등 지금까지 저서는 68권, 교육강연은 679회, 국가발전을 위한 평생교육(1981) 등 다수의 교육관련 연구논문과 기고문은 모두 316건이나 됩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현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봉사활동이고 특히 아프리카아시아남민교육후원회(ADR) 회장으로서 하고 계시는 일과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이종 회장 :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06년 정년퇴임 후에 교육의 기회가 달지 않는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그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아프리카아시아남민교육후원회(ADR)를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ADR은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아동들이 교육을 통해 악순환 되는 빈곤의 끝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학회로 설립되었고, 한국청소년연맹과 청소년연구소를 창설했습니다. 나중에 이 연구소가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으로 발전하여 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교복과 두발 자유화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고 청소년 백서와 평생교육 백서도 발간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평생교육 개론서를 출간하는 등 지금까지 저서는 68권, 교육강연은 679회, 국가발전을 위한 평생교육(1981) 등 다수의 교육관련 연구논문과 기고문은 모두 316건이나 됩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현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봉사활동이고 특히 아프리카아시아남민교육후원회(ADR) 회장으로서 하고 계시는 일과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이종 회장 : 자신의 꿈이 끊겼으면 합니다. 꿈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희망도 생기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도 생깁니다. 꿈으로 삶의 질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마치 배가 방향도 없이 망망대해를 무작정 가는 것과 같고, 비행기가 목적지도 없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단단하게 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운(運)도 따라야 합니다.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훌륭한 선각자들의 책도 많이 읽고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인성과 심성도 좋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행완 편집국장 :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장에서 광부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공부할 생각을 했는지, 또 그 무엇이



필리핀 희망교실 아이들과 함께

동정



▲ 권 혁 남
전북대 교수
가 제8대 전
북연구원 원
장에 지난 3
월 25일 취임
했다. 전주고
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권 원장은
1989년부터 전북대학교 신문방송
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권 원
장은 한국언론학회장, 선거방송심
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장, 전북대 행
정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
다. 권 원장의 임기는 25일부터 3
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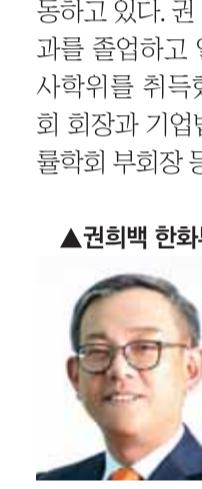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해
외 사업에 대한 역량도 발휘한 으로 유명하다.

▲권오환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 지난 1일
수산의 날 행
사에서 국무
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큰 상
을 받게 돼 감
사할 따름이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
라고 준 상으로 안다”며 “여성여업
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진)가 지난 1일 한국
상사법학회
제31대 회장
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1957년 창립
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상사법 분야
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
랑하는 학회로 법학교수, 변호사, 기
업실무자 등 600여 명의 회원이 활
동하고 있다. 권 회장은 건국대 법학
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제법학
회 회장과 기업법학회 회장, 경영법
률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길주 하나카드 신임 사장이 취
임했다. 임기
는 1년이다.
권 사장은 하
나금융지주
에서 그룹준
법감시인(전
무), 경영지원
실장, 그룹ICT총괄 부사장 겸 하나
은행 ICT그룹 전무 등을 역임하고
2020년 8월부터 두레시팅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3연
임에 성공했
다. 권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한화투자
증권 대표이
사로 취임한
뒤 2019년 3
월 한 차례 연임했다. 이번 연임으
로 2023년 3월까지 5년 9개월간 회
사를 이끌게 되는 셈이다. 권 대표
는 지난 1988년 한화증권에 입사해
영업부터 기획,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섭렵한 전통 증권
맨이다.

▲권전현 천하제일사료 신임 사장이
지난 1일 대
표이사에 취
임했다. 권 사
장은 팝스코
에서 마케팅
실장과 사료
사업 본부장
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는 인도네
시아 법인장을 역임하며 1년 만에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제55차 정기총회 개최

2020년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루어 오던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제55차 정기총회가 권기택 회장과 임원 및 운영이사를 비롯한 권오신 고문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별 비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는 2020년도 감사결과 보고, 결산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장 및 감사 2명 선출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기표하는 방식으로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특별 비대면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이날 회장 선출은 임기만료되는 권기택 회장에 이어 권이수 전임 감사가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으며, 권오선, 권혁신 전임 운영이사는 감사에 각각 선출되었다. 권혁재 전임 감사는 부회장, 권오훈, 권대석 회원은 운영이사에 각각 임명되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권기택 전임 회장은 그동안 종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같이 일해 준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 더욱 발전된 전주완주종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